

서울과 지방 사이의 문화적 거리 극복

광주를 중심으로

양은희 · 미술관학, 미술사 박사

서울과 지방의 지리적 거리는 교통의 발달로 축소되고 있는데 비해 문화적 거리는 여전히 변하고 있다. 이렇지만 아직도 그 거리를 축소하려면 공적 지원을 통해 문화 기관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며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제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유동 인구를 확대하여 지방과 서울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6 05 May

비서울의 힘 보여준, 갤러리 아라리오

요 몇 년 동안 충청남도 천안에서 굵직한 외국작가의 전시를 선보이던 아라리오 갤러리가 올해 4월에 서울 서간동 갤러리 동네에 새로 분점을 내었다. 천안에 소재한 공간에서 신디 셔먼, 바네사 비크로프트, 토마스 루프 등 주요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던 이 화랑은 작년에 중국 베이징에 또 다른 전시장을 마련하고 동북아 중심의 미술작가를 대표하는 현대미술화랑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차에 다시 서울에 공간 하나를 추가한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화랑들이 수십 년 역사에도 이루지 못한 일을 몇 년 사이에 대규모 자본과 주인의 열정을 바탕으로 의욕적으로 국제무대에 들어선 이 갤러리의 행보는 시선을 집중시킨다. 국내외 전속작가제도를 도입하며 한국과 중국의 작가를 확보하면서, 전문적 화랑의 면모와 구조를 구축한 아라리오가 이제 천안, 서울, 베이징을 연결하는 기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동북아 미술의 선두주자 준비를 마친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이 화랑이 보여준 추진력(좀더 정확하게 이 화랑의 주인이 보여준 추진력)은 한국미술계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으며,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열악한 현대미술 지원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그 출발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는 점은 여전히 지방이 문화축진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1990년대 도널드 저드 등 주요한 서양미술가를 소개했던 시공갤러리도 그런 사례였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서울 대학로에 대규모 전시장을 소유했던 이 갤러리는 세련된 모더니스트적 전시공간과 좋은 전시를 기획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아라리오는 시공갤러리 이후 비서울 지역 주도의 현대미술의 수용과 확산에 이바지한 또 다른 사례로 보인다. 하지만 처음에 서울을 거치지 않고 국제미술계로 확장하면서 서울 중심의 미술계가 어느 정도 이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아라리오

가 전격적으로 서울에 입성하면서, 또다시 서울은 우리나라 미술의 중심축임을 증명했다. 그 축은 쓸쓸할 정도로 너무 견고하다.

서울과 지방, 그 어정쩡한 문화적 거리

서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모든 분야의 중심지이다. 그래서 중심바깥에 있는 지방, 그리고 변방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멀기만 하다. 서울과 지방의 거리는 종종 기형적인 현상을 가져온다. 사회의 투명성, 경제적 활력 등 여러 면에서 지방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기에 열악한 구조를 계속 답습한다. 인구의 고령화, 노동인력의 부족, 기업 수 감소,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피부로 느낄 수 없다. 더구나 국제결혼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인구당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서울보다 빠르게 다문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지방이다. 이러한 지방의 문제들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보수화이다. 이는 새로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저해하고, 기존의 예술계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지나치게 공적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구조 하에서 서울 중심의 문화 이데올로기는 강화되고, 지방 예술의 보수화를 고착시키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특히 '현대미술' 분야의 경우 그 속성상 새로운 경향과 자세를 계속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도와 환경이 경직되어 있으면 예술가의 상상력 표출과 활동반경도 그 경직성에 반응하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울과 지방의 지리적 거리는 교통의 발달로 축소되고 있는 데 비해 문화적 거리는 어정쩡하게 변하고 있다. 아쉽지만 아직도 그 거리를 축소하려면 공적 자금을 통해 문화 기관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어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유동 인구를 확대하여 지방과 서울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향으로 알려진 광주의 전통을 현대미술과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광주비엔날레는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시아의 주요 비엔날레로 자리를 잡았으며, 여러 번의 진행 틀 바꾸기, 재단과 기획자 간의 협력관계의 문제점 노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비엔날레로 인정받는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국제미술의 소개와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시도해온 이 행사는 인권과 민주화를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는 광주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냉소와 경쟁에도 불구하고 격년마다 굵직한 외국의 작가와 미술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미술행사가 되었다.

사진제공 : 광주비엔날레

그런 점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지방주도의 국제미술제, 비엔날레는 좋은 변화의 예이며 어떤 지원을 통해 문화의 탈중심을 유도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재정적, 구조적 지원을 통해 문화적 거리 축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 비엔날레는 광주, 부산을 서울과 함께 국제미술무대의 한 이정표로 만들었다. 짝수 해에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부산비엔날레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디어시티 서울> 전시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미술관계자에게 꽤 알려져 있다. 거의 동시에 열리는 경우에는 이 세 전시를 순례하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도 이를 감수하고 전시장을 찾는 외국 지인을 보면 두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관객을 위해 배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지방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 사례들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미술행사를 지향하며 태어난 광주 비엔날레와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문화적 틀을 새로이 짜고 있는 전라남도 광주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예향으로 알려진 광주의 전통을 현대미술과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광주비엔날레는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시아의 주요 비엔날레로 자리를 잡았으며, 여러 번의 진행 틀 바꾸기, 재단과 기획자 간의 협력관계의 문제점 노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비엔날레로 인정받는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국제미술의 소개와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시도해온 이 행사는 인권과 민주화를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는 광주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냉소와 경쟁에도 불구하고 격년마다 굵직한 외국의 작가와 미술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미술행사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비엔날레 재단의 단단한 재무구조와 이 제도를 살리고자 하는 광주미술계의 노력, 그리고 의미 있는 미술행사를 만들려는 미술계의 열정 덕분이라고 할 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상도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은 새로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그 전당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관련 시설과 업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주시 도시에 위치한 금남로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을 저지하고 이 지역을 재개발하여 문화교류와 문화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맡은 것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이 전당은 (구)도청청사 자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이미 국제설계공모가 끝난 상태이며 2005년 12월 착공식을 가졌다. 2010년 완공되어 업무를 개시할 이 전당에는 아시아문화교류센터,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청초센터, 아시아아트플렉스, 어린이지식센터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며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과 소비를 유통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사진제공 :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2006 05 May

문화와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연공간이 많은 지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미술관이나 아트 사이트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와 고층건물 속에서 경험하는 예술과 다른 예술 경험을 창출해야한다. 기획과 진행의 주체는 각 시도에 들어서고 있는 시립·도립미술관들이 맡을 수도 있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 진행할 수도 있겠다. 미술계의 누군가는 빨리 나서야 할 일이다.

2006.05 May

있으며, 이러한 전통을 살려가는 것이 미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촉발한 국제화의 화두는 최근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가져왔다.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시아 블록'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아시아문화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광주에 아시아문화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종합단지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은 새로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그 전당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관련 시설과 사업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주시 도심에 위치한 금남로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을 저지하고 이 지역을 재개발하여 문화교류와 문화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맡은 것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이 전당은 (구)도청청

사 자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이미 국제설계공모가 끝난 상태이며 2005년 12월 착공식을 가졌다. 2010년 완공되어 업무를 개시할 이 전당에는 아시아문화교류센터,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창조센터, 아시아아트플렉스, 어린이식센터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며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과 소비를 유통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전체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먼저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 보다 조직적으로 예술문화 창작과 문화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역할은 기대가 되며, 아시아에서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주는 아시아문화의 주요기지로 떠오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비롯한 유동인구와 거주자의 증가, 고용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밀려 인구와 산업이 줄어든 도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홍보와 같은 당연한 노력 이외에도 문화기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세우는 것은 필요한 교통망의 확충과 연계되어야 한다. 늘어난 인구와 물자의 이동에 편리한 육상, 항공교통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사는 수도권 지역의 관객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서울과 경기권이 주거주지인 사람에게 서울과 지방의 경계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경보다 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마치 중국 상하이에는 다녀왔지만 정작 우리나라 지방의 도시이름과 지리에 어둡고 실제로 방문이나 관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자란 젊은 세대가 더 그러하다. 한때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서울에 사는 지방출신의 사람이 이런 이상한 상식의 부재를 꼬집는 글을 게재하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이에 공감함을 표하는 사람이 많았던 기억이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마치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이 우리의 표준인 것 같은 서울 이데올로기를 약화하려

면 이들의 지방 나들이가 많아져야 한다. 지난 2000년 광주 비엔날레를 취재한 미국의 미술비평가가 꼬집은 말이 생각난다. 뉴욕에 거주하는 그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 회고전을 보러 다수의 한국인들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점에 경이를 표하면서도, 같은 사람들이 그 해에 열린 광주비엔날레에는 안 오더라는 뼈있는 글을 쓴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 부산국제영화제는 미술계가 배워야 할 좋은 사례이다. 일부 열성적인 영화관계자들이 힘들게 시작한 이 영화제가 10년이라는 역사를 세우면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성공 이야기의 뒤에는 서울과 지방 관객의 열의와 함께 충무로 영화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단지 여러 영화를 상영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영화에 출연한 국내외 주요 영화인들이 직접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호응도를 높임으로써 '가볼 만한' 행사로 인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많은 수도권 영화관객의 호응을 얻은 것이다. 이병헌, 장동건 등 주요한 배우들이 참여하여 관객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행사의 상품성을 높이고 영화인의 축제라는 강한 인식을 남겼다. 마치 프랑스의 휴양도시 칸에 영화제를 보러 가듯이 한국의 항구도시 부산에 흥미로운 영화제를 보러 간다는 관념을 세워놓았다는 점은 미술계가 염두에 둘 만한 사례이다. 올해 여름과 가을에 걸쳐 광주와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는 두 비엔날레도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와 함께 수도권 관객의 관심이 절실하다.

문화와 관광, 그 불가분의 관계

지방의 문화결집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 한 예를 꼽자면 경기도 안양시가 안양천을 중심으로 시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모델을 지방에 응용할 수는 있겠다. 쇠락한 유원지에 환경개발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안양공공예

술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안목을 가진 운영을 통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작된 조각 및 건축 작업들은 전시된 이후에도 계속 보존되어 일종의 예술 공원으로 유지된다. 이런 모델은 이미 일본, 미국 등의 도시나 페촌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에치고-츠마리 트리엔날레가 있다.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에 비해 거주자 규모가 감소한 에치고-츠마리의 여러 시골마을에 국제적인 미술가의 야외 프로젝트를 전시하며 일부 작업은 그대로 보존하기도 한다. 이 전시의 매력은 아름다운 농촌을 배경으로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지방 특유의 예술 체험을 극대화한 노력으로는 일본 나오키마의 베네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베네스 사의 기획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미술관과 시골집과 예술가들의 작업을 접목한 아트 하우스들이 들어 있다. 어촌의 풍광을 활용한 현대미술 작업을 둘러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도쿄나 외국에서 온 관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어 한적한 바다 풍경과 함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종합현대미술 체험장을 마련했다. 미리 숙박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과 교통편이 많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지만 세계의 예술애호가들은 순례를 떠나듯,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연공간이 많은 지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미술관이나 아트 사이트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와 고층건물 속에서 경험하는 예술과 다른 예술 경험을 창출해야 한다. 기획과 진행의 주체는 각 시도에 들어서고 있는 시립·도립미술관들이 맡을 수도 있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어 진행할 수도 있겠다. 미술계의 누군가가 빨리 나서야 할 일이다. 